

프랑스의 經濟學敎育과 研究現況

朴 明 浩*

<目 次>	
I.	經濟學敎育
II.	經濟學研究의 現況
III.	맺음말

I. 經濟學敎育

프랑스의 모든 대학교는 국립으로 원칙적으로 문교부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다. 1988년 현재 프랑스에는 72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그 중 51개 대학이 經濟學科를 갖고 있다. 대학교의 총학생수는 984,838명이고, 경제·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수는 62,457명이다.

1. 學 制

대학입학자격은 중등과정 7년제에 치루는 資格試驗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중등과정은 8가지의 전공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전공을 제외하고는 經濟學科에 지망할 수 있다.

대학입학은 특별한 전형을 거치지 않고 대학입학자격증만 갖고 입학이 가능하다. 대학과정의 시험이 매우 엄격하기에 2년과정을 마치면 취득하는 일반대학졸업증(Diplôme d'É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 DEUG)을 받는 학생은 처음 입학정원의 반이 조금 넘는 형편이다.

프랑스의 大學敎育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를 각각 제 1 학제, 제 2 학제, 제 3 학제라고 부르기로 하자.

1) 第 1 學制(Premier Cycle)

원칙적으로 2년간의 수업으로 구성되지만 1년의 재수가 가능하기에 3년까지 연장된다. 卒業試驗에 통과하면 일반대학졸업증(Diplôme d'É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 DEUG)을 취득한다.

제 1 학제과정에서 경제학은 다음의 3분야로 나누어진다.

* 國民經濟制度研究院 研究委員.

(1) 經濟學專攻

산업체, 공공기관 및 각종 경제·사회기관에서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경제학 기초지식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순수경제이론, 수학 및 계량기법 등을 습득한다.

(2) 經濟·社會行政專攻

경제 및 사회행정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며 교과과정의 내용 또한 경제학 이외에도 역사, 사회학, 정치학, 외국어, 수학, 통계학, 회계학 등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다.

(3) 社會科學에서의 應用數學專攻(Mathématiques Appliquées et Sciences Sociales, MASS)

주로 중등교육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한 학생 중에서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응용되는 수학을 수강한다.

2) 第2學制(Deuxième Cycle)

제 2 학제는 일반대학졸업증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과정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인데 재등록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제 2 학제의 첫 해를 마치면 학사(licence)를 취득하고, 둘째 해를 마치면 석사(maitrise)를 취득한다.

학사과정은 經濟學 理論의 기초과정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전공부문 관련 직업에서 응용될 수 있는 과목들을 습득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석사과정은 학사의 교육을 보완하고 직업에 종사하거나 전공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논문을 제출한다.

제 2 학제 과정의 경제학은 제 1 학제와 마찬가지로 3분야로 구성된다.

(1) 經濟學專攻

학사과정에서부터 특수전공으로 분류되는데 전공은 대학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 i) 財政學
- ii) 勞動과 人力資源의 經濟學
- iii) 計量經濟學
- iv) 經濟政策論
- v) 國際經濟學
- vi) 經濟發展論
- vii) 貨幣·金融論

viii) 銀行論

ix) 經濟計劃論

(2) 經濟・社會政行專攻

제 1 학제에서 경제・사회행정을 전공한 학생이 진학할 수 있으나, 경제학・법학을 공부한 학생도 시험을 거쳐 진학할 수 있다.

학사과정에서의 필수과목은 私法, 勞動法, 社會保障, 租稅法, 勞動經濟・社會財政 및 保健經濟, 情報學 및 行政機構論 등이다.

석사과정은 現代政治論, 公共서비스, 比較경제체제론, 재정학, 노동경제, 기업재무론 및 조직사회학이론 등을 수강하여야 한다.

(3) 社會科學에서의 應用數學專攻(MASS)

제 1 학제에서 MASS를 전공한 학생의 진학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전공의 소유자도 시험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학사과정은 각 과목당 2시간의 수업과 3시간의 세미나로 구성되는 과목 13개를 수강해야 한다. 필수과목 중에서 수학은 토폴로지, 확률론, 미분, 적분이고 경제학은 거시경제분석, 국제경제학을 수강해야 하며,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석사과정에서는 확률・통계, optimization, 수치분석 등의 수학강의와 더불어 경제학강의로는 경제수학, 미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구조분석, 모델링 등의 수업을 듣는다.

3) 第 3 學制(Troisième Cycle)

제 3 학제는 박사과정으로 전공분야를 최고도로 심화시켜서 개인연구과정의 심도있는 훈련을 통하여 학문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제 3 학제는 3가지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1) 最高專門學位(Diplôme d'Etudes Supérieures Spécialisées, DESS)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전문직장에 진출을 원하고자 할 때 DESS 과정에 등록을 한다. DESS 과정은 2학기의 수업 및 세미나와 최소한 2달 이상의 연수 그리고 연수보고서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DESS의 전공분야는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i) 運送과 分配

ii) 意思決定技術

iii) 保健體制的 管理와 經濟

iv) 地域開發經濟學

- v) 國際貿易
- vi) 經濟와 관련된 外國語
- vii) 銀行과 金融
- viii) 雇傭管理
- ix) 市場分析
- x) 社會開發

(2) 高級學位(Diplôme d'Etudes Approfondies, DEA)

석사학위 소지자가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DEA 과정에 등록해야 한다. DEA 과정은 2학기의 강의와 세미나, 그리고 논문 2편 작성으로 구성된다.

DEA과정 학생은 DESS와 마찬가지로 입학할 때부터 자신의 전공을 정해야 한다. DEA 과정의 전공은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 i) 國際經濟學
- ii) 貨幣金融論
- iii) 人的 資源 및 勞動經濟學
- iv) 數理經濟學
- v) 計量經濟學
- vi) 公共經濟學
- vii) 巨視經濟學
- viii) 經濟學說史
- ix) 空間 및 環境經濟學
- x) 運送經濟學
- xi) 成長 및 開發經濟學
- xii) 私企業經濟學
- xiii) 經濟政策論

(3) 博士學位

프랑스의 博士學位는 1984년에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현재는 하나의 體系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DEA 과정을 마치고 1년 기간 동안에 논문을 마치면 제 3 학제박사(Doctorat de Troisième Cycle)를 취득할 수 있었다. 제 3 학제박사 취득자에 한하여 국가박사 학위 과정에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고 대체로 제 3 학제박사 이후 5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1984년에 사회당정부에 의하여 博士過程에 관한 改革이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제 3 학제 박사학위를 만든 것은, 국가박사학위의 취득이 워낙 어렵기에, 대체로 외국의 박사학위수준과 유사한 박사학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박사학위제도가 이원화되면서 제 3 학제 박사학위는 점점 평가절하되어 국제적인 공신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가박사학위의 취득은 대체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등 너무 어려웠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984년에 제 3 학제박사와 국가박사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博士學位制度를 도입하였다. 새로 도입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DEA를 마치고 4년 기간 동안의 논문연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大學博士(Doctorat d'Université)

대학박사학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박사학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학박사학위는 석사과정을 마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체로 1년 정도 기간 동안의 개인연구를 통하여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취득을 받는 것인데, 대학박사학위는 프랑스의 정식학위가 아니고, 대학에서 제량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주는 학위이다. 이것은 외국유학생들이 박사과정으로 유학왔다가 돌아가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학위취득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기에, 학교측에서 외국학생에 대한 배려로 만들어준 것이다.

2. 敎課科目

프랑스대학에서의 각 과목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교수가 주당 3시간을 강의하고, 전임강사 및 박사과정의 조교들에 의한 1시간 30분짜리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다. 敎授의 講義는 원론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세미나 시간에는 各 主題別로 입장이 다른 내용의 논문들을 읽고 토론한다. 세미나교재는 학기초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되어진다.

그러면 제 1 학제, 제 2 학제 및 제 3 학제의 경제학전공 교과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하의 교과내용은 파리 1 대학교(Panthéon-Sorbonne)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음).

1) 제 1 學制

(1) 1 學年

① 專攻必須科目

- 經濟理論概論(2강좌)
- 經濟·社會論(2강좌)
- 企業經濟論(2강좌)
- 數學과 統計學(2강좌)

- 컴퓨터(1강과)
- 微視經濟學(2강과)
- 經濟政策論(2강과)
- National Accounting(2강과)
- 法學概論(1강과)

② 專攻選擇科目

- 政治制度論
- 民法概論
- 國際經濟關係論
- 經濟史
- 經濟社會學概論
- 政治學
- 商法
- 獨語
- 러시아語
- 現代史入門
- 近代史入門
- 人文地理入門
- 人口學
- 第三世界論
- 地域地理學
- 政治地理學入門

(2) 2學年

① 專攻必須科目

- 經濟分析(2강과)
- 貨幣·金融論(1강과)
- 統計學과 數學(2강과)
- 會計學(1강과)
- 財政學(1강과)
- 生産과 分配理論(1강과)

② 專攻選擇科目

- 영어
- 독어
- 러시아어
- 응용컴퓨터
- 經濟公法
- 人口學
- 商法
- 民法
- 行政法
- 人口地理學
- 地域地理學
- 地理學要論
- 中世史入門
- 古代史入門
- 數學
- 컴퓨터

위의 교과목은 현재 파리 1 대학교 제 1 학제의 교과내용이다.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공과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제 1 학제과정에서는 주당 35 시간이 넘는 전공강의와 세미나에 따른 시험, 보고서 등으로 처음 입학정원의 반정도가 탈락되고 있다.

2) 第 2 學制

제 2 학제의 교과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도 각科目은 정교수의 강의 3시간과 조교들에 의한 세미나 1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제 2 학제과정에 입학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파리 1 대학교의 경우, 제 2 학제의 학사, 석사과정은 6개의 專攻分野로 나누어져 있다. 각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일반강좌와 자신의 전공분야의 강좌에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파리 1 대학교의 경우는, 학사과정은 10강좌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5강좌는 일반경제학 강의이고 5강좌는 자신의 전공분야로 되어있으며, 석사과정은 4강좌의 일반경제학 강의와 6강좌의 전공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1) 學士過程

① 共同必須 一般經濟學(5강과)

- 거시경제분석(2강과)
- 통계학(1강과)
- 국제경제학(1강과)
- 재정학(1강과)

② 專攻分野別 教科目

가. 公共經濟學

- ㄱ. 必須科目(3강과)
 - 공공서비스경제학(1강과)
 - 행정법(2강과)
- ㄴ. 選擇科目(2강과)
 - 경제정책(1강과)
 - 조세법(1강과)
 - 어학(영어, 독어, 러시아)

나. 勞動 및 人的 資源經濟學

- ㄱ. 必須科目(3강과)
 - 노동경제학(1강과)
 - 노동법과 사회보장정책(2강과)
- ㄴ. 選擇科目(2강과)
 - 계량경제학(1강과)
 - 수학(1강과)
 - 경제정책(1강과)
 - 공공서비스경제학(1강과)
 - 노동사회학(1강과)
 - 어학(영어, 독어, 러시아)

다. 計量經濟學(선택과목 없음)

- ㄱ. 必須科目(5강과)
 - 계량경제학(1강과)
 - 컴퓨터(1강과)

- 수학(1강좌)
- 의사결정의 수학(1강좌)
- 어학(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라. 經濟政策

ㄱ. 必須科目(2강좌)

- 수학(1강좌)
- 경제정책(1강좌)

ㄴ. 選擇科目(3강좌)

- 현실경제분석(1강좌)
- 계량경제학(1강좌)
- 국제통화론(1강좌)
- 어학(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마. 國際經濟學

ㄱ. 必須科目(3강좌)

- 어학(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 유럽경제학(1강좌)
- 국제통화론(1강좌)

ㄴ. 選擇科目(2강좌)

- 수학(1강좌)
- 계량경제학(1강좌)
- 현실경제분석(1강좌)
- 저개발경제학(1강좌)

바. 成長 및 開發經濟學

ㄱ. 必須科目(3강좌)

- 저개발경제학(1강좌)
- 저개발이론 및 정책(1강좌)
- 국제통화론(1강좌)

ㄴ. 選擇科目(2강좌)

- 수학(1강좌)
- 계량경제학(1강좌)

- 어학(영어, 독어, 러시아어)

(2) 碩士過程

석사과정의 경우, 계량경제학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經濟體制論(2강좌) 및 經濟學說史(2강좌)를 공동필수과목으로 들어야한다. 계량경제학 전공학생은 4년 전부터 선택과목 없이 의무적으로 8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석사학위논문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지도교수를 정하여 학년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共同必須 一般經濟學(4강좌)

- 경제체제론(2강좌)
- 경제학실사(2강좌)

② 專攻分野別 教科目

가. 公共經濟學

ㄱ. 필수과목(3강좌)

- 행정관리(1강좌)
- 재무관리(1강좌)
- 기업 및 지방단체경제학(1강좌)

ㄴ. 選擇科目(3강좌)

- 공공경제학(1강좌)
- 사회서비스경제학(1강좌)
- 지역재정학(1강좌)
- 인적자원의 경제학(강좌)
- 고급회계학(1강좌)
- 어학(영어, 독어, 러시아어)

나. 勞動 및 人的 資源經濟學

ㄱ. 必須科目(4강좌)

- 노동 및 인적 자원경제학(1강좌)
- 소득과 분배(1강좌)
- 노동법(1강좌)
- 산업조직론(1강좌)

ㄴ. 選擇科目(2강좌)

- 사회보장(1강좌)

- 보건경제학(1강좌)
- 사회서비스 경제학(1강좌)
- 인적자원의 경제학(1강좌)
- 인구학(1강좌)
- 어학(영어, 독어, 러시아어)

다. 經濟政策

ㄱ. 必須科目(3강좌)

- 계획이론과 방법(1강좌)
- 통화이론과 정책(1강좌)
- 산업경제학과 정책(1강좌)

ㄴ. 選擇科目(3강좌)

- 공공경제학(1강좌)
- 고급회계학(1강좌)
- 공간경제학과 국토개발(1강좌)
- 환경경제학(1강좌)
- 경제수학과 미시경제학(2강좌)
- 국제금융론(1강좌)

라. 國際經濟學

ㄱ. 必須科目(4강좌)

- 프랑스의 국제관계(1강좌)
- 국제무역의 전망 및 예측(1강좌)
- 국제금융론(1강좌)
- 사회주의국가의 국제경제학(1강좌)

ㄴ. 選擇科目(2강좌)

- 어학(영어, 독어, 러시아어)
- 국제관계와 개발(1강좌)
- 산업경제학과 정책(1강좌)
- 통화이론과 정책(1강좌)
- 1850년 이후 부터의 국제경제 및 금융관계(1강좌)
- 인적자원의 경제학(1강좌)

마. 成長 및 開發經濟學

ㄱ. 必須科目(4강좌)

- 개발정책(2강좌)
- 프로젝트분석(1강좌)
- 개발과 국제관계(1강좌)

ㄴ. 選擇科目(2강좌)

- 개발의 국제법(1강좌)
- 제 3 세계의 비교정책(1강좌)
- 제 3 세계의 국제관계(1강좌)
- 인적자원의 경제학(1강좌)

바. 計量經濟學

1강좌당 강의 3시간과 세미나 1시간 30분짜리로 구성된 8개의 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미시경제학과 경제수학(2강좌)
- 계량경제학 방법론(2강좌)
- 의사결정과 프로그래밍의 수학(1강좌)
- 자료분석과 여론조사이론(1강좌)
- 경제학철사(1강좌)
- 어학(영어, 독일, 러시아어)

3) 第3學制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 3 학제는 경제전문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DESS 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위한 DEA과정으로 구분된다. 각 DESS나 DEA는 대부분 10명 정도의 교수와 30명 정도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경제학연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DEA과정의 교과과목을 파리 1 대학의 경우를 놓고 다루기로 하자.

(1) 公共政策의 經濟學(DEA, Economie des Politiques Publiques)

공공정책의 경제학 고급학위(DEA)과정은 공공경제학전공과 산업정책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共同必須세미나

- 거시경제학 II
- 미시경제학 II

- 계량경제학 II
- Optimization II
- ② 公共經濟學專攻
 - 경제정책의 계획 및 평가
 - 이론공공경제학
 - 정치, 경제이론과 모델
 - 정책과 제도의 미시경제적 분석
 - 거시경제모델
- ③ 産業政策專攻
 - 프랑스의 산업계획
 - 국제산업경제학
 - 기술변혁과 산업전략
 - 게임이론의 산업경제학에의 응용
 - 산업에 적용된 예견방법
 - 조세경제학

(2) 人的 資源과 社會政策의 經濟學(DEA, Economie des Ressources Humaines et des Politiques Sociales)

- ① 必須세미나
 - 인적자원의 경제학의 이론적 기초(42시간)
 - 분석방법세미나(42시간)
- ② 選擇세미나(세 가지를 선택해야 함)
 - 사회개입의 경제학
 - 노동경제학 : 노동조건
 - 개발도상국의 고용경제학
 - 고용정책
 - 보건경제학
 - 문화경제학
 - 보건정책의 경제적 접근
 - 사회 · 직업분류에 따른 행태분석
 - 공공정책과 사회제도의 미시경제학

- 기업전략과 고용의 신축성
- 고용—교육의 상호관계분석

(3) 數理經濟學과 計量經濟學(DEA, Economie Mathématique et Econométrie)

수리경제학과 계량경제학 DEA 과정은 기본세미나와 이론세미나로 구성된다. 각 세미나는 1시간 30분씩 14주동안 하도록 되어있으며, 모든 학생은 8개의 세미나를 들어야 한다. 8개의 세미나 중에서 최소한 세미나 하나는 기본세미나에서 택해야 한다.

① 基本세미나

- 거시경제학
- 미시경제학
- 최적의 방법과 원리
- 계량경제학

② 理論세미나

- 응용계량경제학
- 게임이론
- 계량경제학 분석 및 방법 I
- 모델분석
- 경제학에서의 dynamic optimization
- 수리경제학 I
- 체계(system)이론
- 거시모델
- 게임이론의 산업분석에의 응용
- 계량경제학 분석 및 방법 II
- 불균형모델
- 불확실한 여건에서의 모델평가
- 투자분석
- 수리경제학 II

(4) 經濟學說史와 認識論(DEA, Histoire et Epistémologie de la Pensée Economique)

- 일반인식론과 경제학의 인식론
- 17—18세기의 경제사상사
- 경제분석의 기본개념

- 19세기의 사상사 • 사회정의개념의 기원
- 경제인류학 • 시장과 사회과학
- 경제공황론

(5) 巨視分析(DEA, Analyse Macroéconomique et Conjuncture)

학생들은 1년짜리 세미나 4개 혹은 한 학기짜리 세미나 8개를 수강해야 한다.

- 거시경제학(1학기)
- 케인즈의 거시경제학(1학기)
- Meso-analysis연구(2학기)
- 경기변동론(2학기)
- 불균형이론(1학기)
-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1학기)
- 거시제량경제학(2학기)
- Stochastic foundation of macroeconomic model(1학기)
- 공황론(1학기)
- 발전의 거시경제학(1학기)
- 화폐 및 고용이론(2학기)
- 경제성장론(2학기)
- 경제, 사회정책(1학기)
- 중앙계획경제의 거시경제학(1학기)
- 미시경제학
- 최적화와 동태방법론
- 비교경기정책론
- 예견방법

(6) 貨幣, 財政, 銀行(DEA, Monnaie, Finance, Banque)

학생들은 강의 3개를 듣고 연구세미나 3개를 선택한다.

① 講義

- 금융 및 재정거시경제학
- 금융 및 재정미시경제학
- 환율 및 자본이동이론

② 세미나

- 금융정책과 재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화폐와 실물경제
- 프랑스 금융정책분석
- 개방거시경제학의 문제
- 화폐와 고용이론

(7) 國際經濟學(DEA, Economie Internationale)

① 必須세미나

- 국제특화와 산업경제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재정관계

② 세미나(2개선택)

- 불완전한 조건에서의 생산요소와 상품의 국제간의 이동
- 특화, 환율 및 국제무역
- 사회주의경제와 국제관계
- 개발도상국의 소득분배, 성장 및 국제무역
- 고용과 발전
- 프로젝트 분석과 계획

(8) 開發經濟學(DEA, Economie du Développement)

① 必須세미나

- 국제특화와 산업경제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재정관계

② 專攻選擇세미나(1강좌)

- 개발도상국의 소득분배, 성장 및 국제무역
- 고용과 발전
- 프로젝트 분석과 계획
- 세계농업

③ 選擇세미나(1강좌)

- 불완전한 조건에서의 생산요소와 상품의 국제간 이동
- 특화, 환율 및 국제무역

(9) 空間의 分析과 運營, 空間經濟學과 環境(DEA, Analyse et Aménagement de l'Espace, Option Economie Spatiale et Environnement)

① 必須講義(각 강의당 25시간)

- 변수의 다차원적 분석
- 다양한 범주분석
- 비용—이득분석
- 생태계분석

② 專攻選擇講義(2강좌선택)

- 환경경제학
- 국토개발에서 생태계문제
- 환경, 개발과 자율체계이론
- 지역경제학
- 도시발전의 공간적 분석

③ 選擇講義(1강좌)

- 인구지리학과 사회지리학
- 여건, 공간, 지역, 풍도
- 개도국에서 도시의 역할

④ 專攻세미나(2개선택)

- 환경정책과 운영방식
- 지역발전의 분석
- 도시발전의 이론과 정책

⑤ 選擇세미나(1개선택)

- 지리학과 DEA 중에서 하나 선택
- 도시학과 DEA 중에서 하나 선택

(10) 運送(DEA, Transport)

운송 DEA는 3개의 전공으로 구분된다: 국제운송, 지역운송, 지역과 도시운송. 전공에 불문하고 의무강의와 방법론 세미나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전공에 따라 수업을 들어야 한다.

① 必須講義(각 강의당 33시간)

- 운송망의 개념
- 운송의 혁신
- 운송과 논리개발
- 운송에서의 근로조건

- 운송에서의 안전

② 方法論세미나

③ 專攻別 講義

가. 國際選送(4강좌)

- 국제운송의 경제학
- 국제운송의 법적 측면
- 경제, 회계, 컴퓨터와 운송
- 전공세미나

나. 地域運送(4강좌)

- 도시간의 사람운송
- 지역간 운송망의 구조
- 개도국에서의 운송
- 여행자의 지역간 운송이용기술
- 재화의 지역간 운송이용기술

다. 地域과 都市運送(4강좌)

- 지역운송망의 변천과 제도적 논리
- 도시운송기술의 방법과 도구
- 도시운송망의 이용기술
- 도시운송계획의 경제적 공간적 문제점
- 개도국에서의 운송

II. 經濟學研究의 現況

현재 프랑스經濟學界는 비교적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알레(M. Allais), 말랭보(E. Malinvaud) 등은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이들 뒤를 연결하는 베나시(J.P. Bénassy), 그랑몽(J.M. Grandmont), 라로크(G. Laroque), 라퐁(J.J. Laffont) 등도 프랑스경제학의 세계적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레갈레이션學派의 접근방법이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반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레갈레이션理論의 국제학술대회의 좋은 성과가 이를 반영하여 주고 있다.

프랑스의 經濟學은 전통적으로 이원화된 상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현대에 들어와서 점차

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앙시앙 레짐 후기부터 육성되기 시작한 경제엔지니어와 교수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제학교수로의 구분이 점차로 희석되어지는 것이다.

경제엔지니어들은 「一般的 利益」의 추구를 목표로 전화, 철도, 교량, 전력 등의 公共價格決定 및 공공기관의 投資決定에 참여한다. 이들은 대부분 폴리테크닉, 광산학교, 교량학교 등의 전문엔지니어 양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곧바로 경제부서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알레(광산학교 교수), 프랑스전력회사의 보튀유(Boiteux), 경제계획기관의 마세(Massé), 그리고 국립통계국을 거쳐 현재 콜레쥬 드 프랑스에 있는 말랭보 등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가로(Nogaro), 아프탈리옹(Aftalion), 시미앙(Simiand), 리스트(Rist) 등으로 대표되던 경제학 교수들은 經濟的 事實, 統計, 그리고 折衷의 方法論을 항상 견지하여 왔다. 이들에 이어 최근에는 파리대학을 거쳐 콜레쥬 드 프랑스에 있던 페루(Perroux)를 그 대표적 인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 와서는 이들의 구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절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제 2 학제과정의 첫째인 학사과정의 가장 핵심과목이 거시경제학인 반면에 석사과정의 핵심과목이 체제론과 학설사라는 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절충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하에서 각 분야별로 프랑스경제학계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 거시경제학

프랑스의 거시경제학계는 대학을 중심으로 純粹理論을 연구하는 팀과 행정부의 지원을 받고 경제예측을 담당하는 팀이 오랜 기간 동안 분리되었다가 최근에 들어와 말랭보, 알레 등의 노력으로 이론적인 접근과 경험적인 접근간의 접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는 달리 各國의 經濟, 制度的인 特性에 따라서 발전되는 것이기에, 프랑스의 거시경제학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분균형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거시경제학도 조금씩 국제무대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

不均衡理論은 말랭보, 베나시, 그랑몽 등에 의해서 발전되어서, 특히 현대의 실업현상을 규명하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균형이론은 市場에서의 coordination문제를 고찰하는 것으로 왈라스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중앙화된 형태의 모색과정이라는 비현실적 가정대신에 분권화된 경제와 수량적인 제한에 관한 가정을 도입하고 있다.

불균형이론은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하였지만, 각 시장간의波及效果分析을 통하여 케인즈경제학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거시경제적 불균형현상에 微視的 基盤을 제공하는 理論的 貢獻을 하였다. 특히 실업현상을 연구하면서, 有效需要의 결핍에서 오는 케인즈적 실업과 경제의 수익성이 너무 낮은 데서 발생하는 고전경제학적 실업을 구분함으로써, 失業問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불균형이론은 가격 및 임금의 불변에 대한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IS-LM분석보다,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理論經濟學

이론경제학은 이론의 論理的 整合性和 普遍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에, 그 연구방법론이나 대상이 국제적으로 공용되고 있다. 이론경제학의 현재 추세를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競爭理論 및 經濟制度의 이론적 기반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部分均衡에 관한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이론경제학의 주된 대상인 각 경제부문간의 相互關係를 다루는 일반균형에 관한 연구인 것이다.

부분균형의 접근은 寡占的 競爭에 관한 분석이 게임이론과의 접목을 통하여 큰 관심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市場經濟制度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정보이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노동과 신용의 제약이론 등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一般均衡理論은 우선 애로우-드브루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하였던 巨視經濟學의 微視的 基盤, (태양혹점설을 포함하는) 景氣變動論, 合理的 期待論 등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프랑스의 이론경제학계도 이같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발라스코(Balasko), 코르네(Cornet), 부르기농(Bourguignon), 그랑몽(Grandmond), 게느리(Guesnerie), 라퐁(Laffont), 라코크(Laroque), 티롤(Tirole), 유네스(Younès), 베나시(Bénassy), 푸르조(Fourgeaud), 에닝(Hénin) 등의 소장들과 더불어 디비자(Divisia), 알래(Allais), 말랭보(Malinvaud), 르수른(Lesourne) 등의 원로급들이다.

3. 勞動經濟學

70년대 초반부터 經濟危機現象이 나타나면서, 프랑스의 노동경제학은 다음의 두 方向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첫째로는 새로운 분야로 研究對象을 넓히거나, 전통적인 研究分野에 대한 再解釋이고 둘째로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巨視的 接近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같은 프랑스 노동경제학의 두 가지 측면은 勞動의 分化, 勞動市場의 機能과 雇傭 그리고 雇傭과 失業의 關係에 대해서 상당한 공헌을 이룩하였다. 이하에서 이들 분야의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1) 勞動分化 : 테일러리즘, 勞動過程

테일러리즘과 포드리즘의 위기적 상황속에서 勞動分化에 관한 연구가 새로이 내두되고 있다. 여기서 노동경제학자의 공헌은 테일러 혹은 포드형태의 노동분화과정을 剩餘勞動推出의 기반으로 파악하게끔 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노동과 생산의 리듬에 따라서 노동과정의 유형을 분석하는 시도와 더불어 위의 전제를 기초로 大量生産—大衆消費에 입각한 자본축적의 양상을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코리아(B. Coriat)의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2) 分割理論(segmentation theory) : 勞動市場에서 雇傭體系까지

분할이론은 미국에서 都市貧民에 관한 經驗的 研究에서 유래되었다. 人種 및 性差別에서 유래되는 賃金 및 失業問題를 다루던 분할이론은 노동시장과 고용문제에 적용되면서 그 분석범위가 확장되었다.

분할이론이 프랑스에 도입되면서 그 모습은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우선은 미송(F. Michon)과 제름(J-F. Germe) 등에 의하여 勞動需要에 관한 연구가 보강되었고, 이어서 코리아, 보예(Boyer) 등에 의한 勞動過程分析이 도입되면서, 분할이론은 노동수요와 노동과정에 관한 연구에 기반을 둔 巨視經濟學的 「雇傭體系」理論으로 발전되었다.

3) 雇傭과 失業關係

과거에 비하여 현대 실업이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것이다. 첫째로는 失業의 「選擇性」(selectivity)이다. 많은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현재의 실업현상은 이주자, 여성, 젊은이 등 특정한 계층과 더불어 특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현대 실업현상이 지속적인 産業의 再調整過程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雇傭—失業關係는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産業經濟學

산업경제학은 마샬(A. Marshall)의 「産業經濟學」(1879)에서 시작한다. 「산업경제학」은 주로 産業部門의 움직임, 技術進步와 産業生産을 지배하는 法則, 그리고 「資源이 企業에 의하여 效率의으로 配分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規模의 經濟, 外部經濟 등의 새로운 경제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산업경제학은 Anti-trust법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법의 실질적 운영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프랑스의 산업경제학은 비교적 다양한 방면을 다루고 있다. 그 주된 대상은 産業集中, 金融 및 産業그룹의 權力·資本과의 連關性 등이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多國의 企業의 출현, EC의 統合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산업경제학은 위와 같은 연구주제를 자본축적의 조건과 밀접히 관련시키고 있다는 데서 그 특징을 갖고 있다.

5. 마르크스經濟學

프랑스에 마르크스주의가 소개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주로 마르크스주의는 자유주의자와 집산주의자들 간의 理念論爭의 대상이 되었지, 理論的인 研究는 1950년대 이전까지는 드문 상태이었다.

프랑스경제학계에서 마르크스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드니(H. Denis)이다. 드니 이전에도 바르톨리(H. Bartoli)가 「마르크스의 經濟·社會독트린」을 1950년에 출간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이나 성과의 측면에서, 드니의 「價値와 資本主義」(1957)가 마르크스경제학의 가능성을 학계에 최초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드니를 위시하여 보카라(P. Boccara), 드로네(Delaunay) 등은 프랑스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國家獨占資本主義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1966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상당한 호의를 얻게 된다. (프랑스 공산당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한다.) 1971년에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을 기술한 「마르크스經濟學入門」은 5만부 이상 팔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마르크스의 史的 唯物論에 기초를 두고 현대자본주의경제를 분석하는데, 특히 資本蓄積過程 속에서 現代國家의 役割에 관하여 나름대로 공헌을 하였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발전을 못보고 시들해지다가 현단계에서는 공산당내에서도 논의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70년대 중반 이후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다양한 논의들에게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공헌을 찾을 수 있다.

6. Régulation 理論

레귤레이션이론은 不均衡理論, 理論經濟學과 더불어 프랑스 경제학계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레귤레이션학파의 이론가들은 40대 초반으로 이들은 1960년대의 특수한 프랑스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학시절을 지냈다. 알튀세르(Althusser)에 의한 마르크스연구, 푸코(Foucault)의 기존제도의 폭력성에 관한 연구, 부르디유(Bourdieu)와 보드리(Baudrillard) 등에 의한 교육, 문화 및 지배계급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알제리와 베트남 전쟁, 그리고 드폴을 물러나게 한 1968년의 학생운동 등을 거치면서 이들 레귤레이션학파의 이론가들은 비교적 진보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폴리테크닉 출신으로 개별적으로는 프랑스행정부의 거시모형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1974년에 아그리에타(Aglietta)의 박사학위논문인 「資本主義의 레귤레이션과 恐慌, 美國의 經驗」이 레귤레이션학파를 구성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아그리에타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個人的 利益追求原則에 입각한 均衡理論的 接近으로는 힘과 갈등의 관계인 社會·經濟關係와 經濟現實을 설명할 수 없기에 새로운 이론틀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社會의 制度的 形態와 經濟의 再生産構造의 결합을 의미하는 레귤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아그리에타의 논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으며, 특히 1976—77에 걸쳐서 CEPREMAP을 중심으로 베나시(Bénassy), 보예(Boyer), 리피에츠(Lipietz)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을 연구하는 젊은 경제학자들이 레귤레이션접근방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레귤레이션학파가 형성되어졌다.

레귤레이션학파의 기본가정은 資本主義經濟의 基本運用論理는 資本蓄積이라는 것이다. 한 사회의 레귤레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축적의 논리와 사회관계가 제도적인 타협(institutional compromise)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레귤레이션의 성격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형태들과 자본축적의 양상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형태와 자본축적의 양상이 서로 양립 불가능할 때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귤레이션연구를 위해서는 生産體系와 社會需要의 力學關係를 의미하는 賃金—利潤 혹은 消費—投資의 分配問題 뿐만 아니라, 이들의 矛盾的인 關係를 어떻게 制度的으로 仲裁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사회전반의 조직원리도 명백히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레귤레이션학파에 의하면, 社會의 基本關係를 잘 나타내는 제도적 형태로는 임금관계, 경쟁의 양상, 국가의 성격, 통화창출방식, 국제관계의 5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이러한 5가

지 사회제도의 구성요인들과 資本蓄積의 논리와와의 관계에서 레갈레이션의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레갈레이션이론에 의하면 2차대전 이후부터 70년대 초반까지를 독점적 레갈레이션단계라고 보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독점적 레갈레이션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레갈레이션학파는 방대한 작업을 통하여 자본주의발전의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는 등 경제이론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 이론의 페두리가 너무 방대하다보니 이론의 論理的 整合性 혹은 理論的 嚴密性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최근에는 좌예를 주축으로 하여 후기케인지안(post-Keynesian)과 유사한 전통 속에서 거시모델의 설정을 위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7. 經濟學說史

미국의 경제학설사학회의 회장이던 코우츠(A. Coats)의 지적대로 파리는 캠브리지, 로마와 더불어 경제학설사 분야에서는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경제학설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하나는 經濟思想 혹은 經濟理論의 形成, 發展 그리고 變形過程을 다루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경제학설사이고, 다른 하나는 經濟學의 方法論 혹은 認識論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두 가지 분야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최근에 들어와서는, 현재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접근방법이 경제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거 경제학자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도처에서 진행중이다.

이러한 시도들 중에서 비교적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접근방법으로는 네오리카디안(Neo-Ricardian)의 접근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오리카디안은 프랑스의 특징적인 학파라기 보다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10대학을 중심으로 아브라함-프와(Abraham-Frois), 베네티(Benetti), 비다르(Bidard) 등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레비(Lévy)와 듀메닐(Duménil)은 거시적 不均衡現象의 고전경제학적 미시적 기초를 갖는 모델(classical micro-foundation of macro-disequilibrium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스미드에서의 市場價格과 自然價格間의 gravitation 관계, 리카아도에서의 자본이동을 통한 生産價格의 형성, 그리고 마르크스에서의 利潤率均等化過程을 기초로 분권화되고, 제한된 정보를 갖는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sequential모델을 만들어서, 현대 경제의 불균형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III. 맺 음 말

우리는 프랑스의 經濟學敎育과 研究現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全體的인 方向과 연관된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부 교육을 미국식으로 교양과정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나 기타 유럽국가들처럼 대학 입학부터 본격적으로 전공공부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식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전공공부는 大學院에서부터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學部過程에서는 전반적인 人格形成을 위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는 全般的인 敎養을 쌓는 과정은 철학과목이 가장 중요시되는 중등과정에서 일단락을 지우고, 대학부터는 전공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과연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의 상황에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大學敎育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한 것이다. 아꼴든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 입학시험제도, 그리고 대학의 교과과정은 각국의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만은 명백할 것이다.

프랑스대학의 經濟學敎科科目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경제학 분야를 다양하게 세분하여 놓고 전문화된 공부를 시키고 있는 한편에, 다른 측면으로는 석사과정의 전공필수과목이 經濟體制論과 經濟學說史로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하여 주듯이 포괄적이며 歷史的인 視覺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전공분야의 지식과 더불어 현 체제의 문제 그리고 현대 경제학이론의 발전과정을 동시에 연구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프랑스경제학계의 現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해 경제학자의 층이 매우 두텁다는 것이다. 한 대학교에서도 경제학 정교수가 100명 수준에 달하고 있으니, 分野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그 研究水準도 높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이런 점을 받아들여서 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소에서 진문 경제인을 더욱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의 층이 두터워야 다양한 성향의 경제이론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한 서로간의 경쟁 속에서 이론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討 論〉

孫炳海教授*의 論評

大學別로 專功別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프랑스 大學에서의 경제학 교과내용과 교육 체계를 朴明浩博士께서는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內 경제학연구의 조류와 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하지만 밀도있게 소개해 주고 있다. 소개된 내용들은 經濟教育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대학의 교과운영에 시사하는 바 교훈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주제발표에서 지적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육연구과정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 대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내용중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추가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大學別 교과내용이 大同小異하게 작성되어 거의 획일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는 동일한 經濟學科의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대학별로 그 교과목 구성과 연구방향에 특성화가 드러나고 있으며, 대학별로 교육내용 및 연구분야의 專門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經濟學研究 動向과 그 成果 가운데 Regulation理論(M. Aglietta, R. Boyer 등)과 Fordism의 危機와 관련한 勞動分化 과정에 대한 연구(A. Lipietz) 등은 이미 세계적 관심이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 추가할 수 있는 연구동향으로는 國際經濟學分野에서 C.A. Michalet, C. Ominami 등에 의한 世界經濟論(Théorie de l'économie mondiale)의 형성이론과 Destanne de Bernis 및 Lassudriedu Chene 등에 의한 國際分業構造의 階層化에 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經濟의 國際化 과정을 통해 전통적 國家概念이 후퇴하고 多國籍企業이 대두됨으로써 國家와 多國籍企業間의 변증법적 변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世界經濟理論의 분석틀이 형성된다는 Michalet類의 주장과 세계적 국제분업구조를 첨단선진국, 중간공업국, 중진국, 중계국 및 후진국의 五段階로 구분하여 국제간 분업구조의 動態性을 구명하려는 D. de Bernis 등의 연구는 國內 國際經濟學者들에게도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동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들은 金世源 教授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

* 慶北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언은 생략하기로 한다.

李康龍教授*의 論評

파리 제 1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教科科目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이 어차피 하나의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고 본다면 파리 1대학과는 다른 傾向을 가진 대학의 교과과목들도 소개되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미국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파리 9대학이나 또는 마르크스 경제학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파리 8대학의 교과과정도 소개하였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학의 각종 유파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그것은 정치권에서의 좌파와 우파간의 권력 투쟁이 대학내에서 학자들간의 파워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에서 일어나는 新保守主義 물결의 대두이다. 이러한 政治社會的 變化에 따라 대학내에서도 마르크스경제학의 퇴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마르크스경제학 중심으로 운영되던 파리 8대학의 교과과정이 1984년 우파정권의 재대두이후 근대경제학을 많이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던 것이다. 즉 마르크스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파리 8대학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점이다. 또 한 가지 예는 파리 1대학에 부설되어 있던 IEDES(즉 제삼세계 경제·사회연구소 및 박사학위 교육기관)가 Palloix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Amien대학으로 쫓겨가게된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발표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프랑스에서의 대국민 경제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경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으면 한다.

* 韓南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